

제3권 (8단원 : 성도의 생활 자세)

(제43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성도

- 본문 : 로마서 9:1-3, 13:1-7
- 요절 :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
- 찬송 : 275장(새찬송가 498장), 521장(새찬송가 586장)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예외없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7년 기근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자기 동족을 애급으로 초청하여 목축을 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서 살게 함으로 유아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하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내어버린 채 바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였으며, 왕비 에스더는 멸망 직전에 놓인 자기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금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기어코 하만의 계교를 무산시킴으로 동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잘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1.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롬 13:1~2)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출선해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평온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익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과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총독부의 명을 어기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렀던 성도들과 같이, 신앙을 위해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세속 국가의 권위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일각에는 신앙을 빙자하여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있는데,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성경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선배 성도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계몽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3.1운동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 인사가 무려 16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이나, 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고 병원을 세워서 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은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헌신은 이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었고, 나라를 잃고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배들이 세워놓은 좋은 전통을 유지할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힘써야 하며, 이와 함께 성도들이 개인 차원에서 사랑과 성실로 이웃을 돕고 어디서나 맡은 바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심각한 병리 현상에 대하여 성도들은 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밝고 맑고 명랑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3.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사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로서 쏟아진 불과 유황에 타서 멸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 원인은 그 사회에 죄악이 관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요나서에는 그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던 니느웨가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요나의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통회 자복한 결과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흥망 성쇠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비록 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대적을 물리치고 흥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는 여지없이 이방 나라의 수모를 겪고 드디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는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사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족이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방면에서 정의롭고 부강한 민족이 되는 길은 나라의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음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소망을 천국에 두면서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건전한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창한 일을 추구함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과 정직과 성실로 행하고, 복음 전파에 힘씀으로써 가능케 됩니다.